

“복지 전 분야 세심한 군정 펼칠 것”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 물 복지·의료·어르신·장애인 등 복지 분야 공약 발표

무소속 기호 4번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는 26일 물 복지 의료 분야 어르신 유아 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우선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코로나19의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코로나19에 지친 군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하는 다답들로 전 군민기본소득을 약속했다.

황인홍 후보는 물 복지를 강조하면



서 무주를 취수원 취수장을 1급수로 올리고 정수장 간이정수장 등 청결과 위생 상태의 상수도매관을 제시했다.

황 후보는 보건의료원에 전문 의사를 확대 운영하고 수술 후 회복단계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병동을 운영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약속했다.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과 이미용비 지원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확대 시행하고 맞춤형 어르신 돌봄서비스와 읍내 목욕탕과 협약하고 어르신들의 무료 목욕 편의를 도모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태아

에서 5세까지 심비보험 가입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운영 확대와 공영버스의 승하차기 편리하도록 저상 버스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건립을 약속했다.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서는 고향나들이 확대와 국적 취득 시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는 “복지는 가장 보편적인 권리로 누수 없이 모든 곳에 잘 전달이 되도록 세심하고 촘촘하게 민생기 군정을 펼치겠다”며 그동안 포부를 밝히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 ‘산사태 대책 상황실’ 운영

산림재해 예방·대응 군민 생명·재산피해 최소화 위해

무주군이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여름철을 앞두고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군민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무주군청

군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운영될 산사태 대책상황실은 주의단계와 경계단계, 심각단계로 운영하며, 산사태 초동대응에서부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8개 반 14명이 참여하는 대책반을 편성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및 사전재해예방에 본격 나선다. 이들 대책반원들은 기상정보와 산사태 정보 수집과 피해접제 및 상황보고 응급복구 현장지원, 주민 대피와 피해조사, 피해복구 등을 신속하게 펼치기로 했다.

또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피해규모 파악과 2차 피해를

/무주=전문선기자

“가뭄대책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할 것”

전춘성 진안군수 후보, “마음 편히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민과 관이 노력”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진안군수 후보는 2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전춘성 후보는 가뭄 피해와 관련해 “현재 진안군은 심각한 가뭄으로 농작물은 말라 죽고 농민의 마음도 타



들어 가고 있다”며 “하루속히 이 위기를 극복하고 마음 편히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민과 관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대비책의 일환으로 “가뭄 지역 비상용수 공급에 꼭 필요한 인력, 장비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며 “민관은 상호 협력해 비상용수에 대비해 저수지 물 절약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읍·면별로 가용한 가뭄 대비용 장비도 미리 점검해 가뭄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운동이 끝나면 즉시 예비비를 비롯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가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다”며 “민생기 군수에 당선되면 장기적 수자원 확보 대책, 제한급수 대책, 항구적 용수공급원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며 “위기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기에 저는 농민의 진짜 친구, 가족으로서 가뭄대책을 위해 적극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진안=우태만기자



진안군은 상반기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로 (쥬건보)의 프리미엄홍삼정(농축액), 마이홍삼13(추출액) 등 2개 제품을 품질인증 제품으로 선정했다.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제품 2개 신규 선정

진안군은 상반기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로 (쥬건보)의 프리미엄홍삼정(농축액), 마이홍삼13(추출액) 등 2개 제품을 품질인증 제품으로 선정했다.

군은 상반기 심사위원회에 신청한 제품은 농축액 1종, 추출액 4종 등 총 5개로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개 제품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나머지 3개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 및 보완사항을 거쳐 재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진안군은 2012년부터 군수품질인증제를 도입해 관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홍삼가공품에 대해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진안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인

증기간 동안 (재)진안홍삼연구소를 통해 연2회 인증제품을 수거해 홍삼상분(조사포인 함량, 진세노사이드 성분, 잔류농약검사 등)를 검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품목은 농축액, 추출액, 차, 절편, 정과, 분말, 환, 펠리, 사탕으로 총 9개 품목이며, 이번 신규인증 제품을 포함해 총 58개 업체, 76개 제품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김창열 부군수는 “진안군수 품질인증제는 타지역과는 차별화된 홍삼제품의 우수성을 보증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병품홍삼에 걸맞은 완벽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진안삼 재배 기반 확대·가격폭락 대응”

이한기 진안군수 후보, “진안의 전통산업 인삼·홍삼 전락품목으로 육성”

이한기 무소속 진안군수 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배면적과 농가수가 감소하고 있는 진안삼의 명성을 회복하고 가격폭락으로 곤경에 처한 농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한기 후보는 농가지원 대책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인삼농가에 가격안정 기금으로 응급 대처하고, 지원에



서 배제된 미신고 삼포는 별도의 생산비 보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인삼가격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폭락해 인건비도 견디지 못한 실정이다”며 “영농자재는 해마다 20%씩 상승하고, 인력은 구하기도 어렵고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어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진안군의 보조사업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인삼재배면적과 농가가 줄며 현재 진안삼은 재배 인프

라가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한기 후보는 “그동안 인삼농가와 소통이 없어 형식적이고 생색내기 사업 위주로 지원해왔으나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적(거치) 등 농자재와 인력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며 “고려인삼 주산지에서 가공용으로 가장 우수한 진안삼의 재배 기반을 확대하여 진안의 전통산업인 인삼과 홍삼을 전락품목으로 육성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가뭄 피해 예방 방법 강구 | 진안군, 읍면장 등과 대책회의 열어

진안군은 26일 최근 이어지는 극심한 가뭄과 관련해 김창열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주재로 부서장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뭄피해 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진안군 지역은 6개월간 강수량이 평년보다 낮고 5월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발작물 재배관리에 농가들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가뭄 피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폭염이

지속되는 등 가뭄이 더욱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회의에는 안전재난과, 기술보급과, 건설교통과,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장 등이 모여 가뭄 현황 및 농작물 생육상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읍·면장들은 가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방재단 조기운영과 읍·면 양수기 대여, 송수 호스 구입 등의 방안들이 제시돼 군은 이를 적극 반영해 가뭄 대응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

김창열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철저한 가뭄대책 수립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협 무주군지부가 지난 25일 구천동농협,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 설천면과 함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설천면 청량리 복숭아 농가와 무풍면지성리 사과 농가를 찾아 범농협·민·관 합동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농협 무주지부, 범농협 민관합동 농촌 일손돕기

농협 무주군지부(지부장 오영석)가 지난 25일 구천동농협(조합장 안승욱)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지사장 배상중), 설천면면장 김영수와 함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설천면 청량리 복숭아 농가와 무풍면지성리 사과 농가를 찾아 범농협·민·관 합동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는 농협무주군지부, 구천동농협,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 설천면사무소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개조로 나누어 복숭아 출하상자 잡기와 사과 적과 작업 등 일손부

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일손을 보태며 구슬땀을 흘리며 진행했다.

배상중 지사장은 “직원들과 함께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기쁘다”며 이런 기회를 자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영석 지부장은 “영농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범농협 차원의 영농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치매 인식개선 위한 학교 순회 교육

무주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교육을 비롯해 흡연 예방교육, 알코올 중독 및 자살 예방교육 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군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무풍초등학교 등 8개 학교로 찾아가 학생 414명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치매파트너 양성을 위해 치매인식센터 치매담당자가 치매의 정의 및 초기증상, 유형현황, 역할 등을 교육하고 향후 치매파트너로서 치매가족 지도모임,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 봉사활동 등 참여가 가능하다.

청소년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흡연 및 알코올 중독, 자살예방교육도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진행되는 흡연 및 알코올 중독, 자살예방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흡연과 알코올이 주는 큰 피해 사례와 청소년들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장수군, ‘세계 고혈압의 날’ 맞아 예방 캠페인 실시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유봉욱)은 지난 25일 장수시청에서 고혈압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고혈압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고혈압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5월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이해 실시한 것으로 혈압 측정 전에는 진단이 어려운 고혈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과 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보건의료원은 고혈압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혈압 수치 알기 △짜게 먹는 습관 교정하기 △적정 체중 유지하기 △규칙한 운동하기 △절주 또는 적당한 음주 △정기적인 혈압 측정하기 △야채·과일 충분히 섭취하기 등 식이 조절, 생활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알렸다.

기타 고혈압 예방 관련 궁금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063-350-28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기자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TF팀 첫 실무추진 회의

진안군은 26일 지난 4월 고향사랑기부제 TF팀(단장 부군수)을 구성한 이래 첫 실무추진단 회의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사전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업주요 쟁점으로 △갖고 싶은 담레품 구성·선정,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연계,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 공감하는 기금활용 사업 발굴로 설정하고, 추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리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함께 일정한 지역 농축특산물 등을 담레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이며 기부액의 30%까지 지역특산물 등으로 담레품을 제공한다. 또한 모집된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주민 복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때 이른 더위 시작... 진안군,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추진

9월 30일까지 추진기간 설정 선제대응 나서기로

취약계층 재난도우미 지원·무더위쉼터 운영 등

진안군은 올해도 때 이른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인접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폭염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밝혔다. 군은 9월 30일까지 4개월간 폭염 대책 추진기간을 정하고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건강관리지원반, △시설관리반으로 구성된 합동 폭염전담팀(T/F)을 구축했으며 폭염 특보 및 피해발생 시 신속한 통보 및 보고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폭염취약계층에 대해 재난도우미 지원과 방문건강프로그램 운영,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를 247개소를 지정·운영, 고정형

그늘막 10개소, 자동으로 접히고 펴지는 스마트 그늘막 3개소 운영하며 이외에도 그늘막 도로 복사열 감소를 위해 폭염대비 살수차 운영할 계획이다.

문병인 안전재난과장은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년과 비교해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폭염일수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야외작업과 외출을 자제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섭취하는 등 폭염 행동요령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